

진도군, 폭염 피해 예방 활동 나섰다

가축 피해 예방 · 무더위 쉼터 운영 · 도로 물뿌리기 등

“무더운 오후 시간대엔 가급적 야외 활동 자제 필요”

진도군이 최근 폭염특보와 함께 더위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폭염 피해 예방활동에 나섰다.

경로당과 미윤히관 등 283개소의 무더위 쉼터 운영과 함께 지난 17일(화)부터 도로 위 실수(물 뿌리기)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로 위 물뿌리기 작업은 32°C 이상의 폭염주의보 발효 시 시가지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 대해 오전과 오후 촉약 시간대에 총 4시간에 걸

쳐 실시해 아스팔트 도로의 강한 복사열을 잡시거나 식혀주고 있다.

물 뿌리기로 도로면 온도를 6~7°C 감소시켜 열섬현상을 최소화해 도로의 노면 변형 방지, 먼지제거 등 폐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은 무더위 쉼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내 표지판 정비를 마무리하고, 네·난방비 지원 등으로 시원하고 폐적한 공간이 유지 되도록 관

리해 나가고 있다.

특히 가축 폭염 피해 관리 대책

을 수립하고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축산농가 피해를 철저히 예방하고, 피해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축산대책상황설’을 군청 농업자원과 등에 설치하고 오는 10월 중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농

가=조상용 기자



지난 17일 여수시민들이 여권 발급을 위해 화요 야간 민원실을 이용하고 있다.

여수시 화요 야간 민원실 ‘인기’

여권 · 주민등록 · 인감 등 평균 민원 30건 처리

여수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 매주 화요일 운영하는 야간 민원실이 평균 30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운영을 시작한 화요 야간 민원실은 이달 17일 현재까지 590여 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가장 많은 민원은 여권민원으로 456건이다. 시는 여권민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야간 민원실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휴가철을 맞아 가족단위 여권을 신청하려는 민원인들의 야간 민원실 방문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송기홍 기자

야간 민원실은 평일 근무시간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문을 열었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다.

처리 가능한 민원은 여권신청·교부부터 주민등록·인감증명 업무, 가족관계 민원접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지적민원 상담, 각종 증명서류 발급 등 다양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정공감 감동시정’ 구현을 위해 화요 야간 민원실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건강과 환경 지키는 면생리대 사용해요”

면생리대 사용 만족도 66.7%, 호응 높아



장흥군은 지난 17일 장흥여자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백암불질 걱정 없는 면생리대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로 면생리대를 제작해 전달했다.

사용 후 설문조사 결과 일회용 생리대 사용보다 면생리대 사용 만족도가 66.7%로 높았다.

면생리대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83.3%로 기대 이상으로 높아 면생리대 사용에 대한 호응도

가 매우 높았다.

장흥군은 K-water 서남권전남지사(조용성 지사장)의 후원을 받아 장흥군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과 함께 면생리대를 직접 만드는 시간을 마련했다.

장흥군 여성단체 협의회 홍정님 회장과 회원(김윤숙, 김지옥, 정순덕)이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제작과정을 설명하고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 보면서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고, 스스로 빨아 쓰는 면생리대 사용으로 환경보호는 물론 비용절감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홍보하였다.

앞으로도 여성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에게도 홍보하고 판매하여 뜻 깊은 곳에 사용할 예정이다.

완도군, 주요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꽝꽝’

상반기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등 6곳 추가 설치

완도군은 2017년까지 22개소 공공시설 및 주요관광지에 무선 인터넷(Wi-Fi)을 구축하였고, 올 상반기에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을 비롯해 6곳에 추가 설치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전남도내 주요 관광지 확대 사업이 선정되어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은 공동으로 지금을 출자하는 매칭펀드 방식이며, 4억 4천 2백만 원(국비 12%, 도·군비 각 19%, 이동통신사 50%)의 사업비로 17개소 관광지에 설치되어 우리 군은 향후 5년 간 희선요금 및 운영비의 부담을 덜게 됐다.

28곳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는 군민과 우리 군에서 일손을 돋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나이가 관광객들이 인터넷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밀거름이 되고 있다.

신영군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 전남도와 연계하여 주요 관광지와 가고 싶은 섬 등에 공공 와이파이가 지속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 무료 서비스 이용자는 개인 정보 노출 및 보안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완도=김광수 기자

장흥군,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 내실화

친환경농업단지 대표와 간담회



장흥군은 지난 16일 장흥복재산 업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친환경농업인·관제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농업 확대 내실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판로확보가 어렵고 차별화가 없는 무농약 버는 유

기농으로 전환하고 학교급식 등 수요량이 많은 과수, 채소 등으로 인증품목을 다양화하는 등 친환경 농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올해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앞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안군 농촌교육농장에서 힐링하세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무안군은 최근 여행 트렌드인 ‘힐링·실속·교육적 가치’를 갖춘 키워드에 맞춰 농촌의 주요 자원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시킨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객을 맞을 예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군은 교육농장 운영자에 대한 컨설팅과 각종 체험시설을 정비하고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등 주변 관광시설과 더불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였다.

농촌교육농장은 ▲ ‘파도목장’ ▲ ‘네미승마’ ▲ ‘정진묘’ ▲ ‘반딧불’ 등 가족과 함께 휴가하기 좋은 농장 4곳이다. 현경면에 위치한 파도목장은 행복한 젖소를 주제로 푸른 바다에 내려다보이는 농장에서 젖소에 대한 교육과 함께 우유이이스크림, 요거트, 치즈 만들기, 갓벌체험 등 다양한 목장체험과 함께 캠핑도 즐길 수 있으며, 삼행읍에 위치한 테마

무인=이기성 기자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그대로의 맛과 신선함!